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중 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물질에 깨끗한 교회로 계속 거듭나기

헌금 바로 하고 바로 쓰기에 우리 교회 선교사들도 동참키로

우리 교회는 최근 수주간에 걸쳐 '헌금 바로 하고 바로 쓰기'에 온 성도들의 힘을 모으고 있다(주간중헌 9월 28일자 참조). 헌금에 관해 이토록 단호하게 강조하고 실천해 가는 것은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돈과 관련하여서는 매우 불투명하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꾸준히 보여왔고, 그 관습이 매우 뿌리깊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헌금에 투명성이 없게 되면, 물질로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위축되기 마련이고, 불행하게도 '거룩한 교회'가 '의심받는 사람의 단체'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물질을 사람의 이기적인 뜻을 따라 바치고 쓰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동안 헌금을 드리는 일에 매우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물질과 기도로 헌신해 왔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더욱더 하늘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남모르게 교회를 통하여 헌금을 함으로써, 물질이 주님의 이름으로 합당한 일에 쓰여지도록 더욱 마음을 기울여야 하겠다. 교회를 통하여 드러지고 쓰여지는 물질이, 사람의 이름이나 개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어야 하겠다.

이에 따라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은 이러한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힘써 실천해 가고 있으며, 우리 교회 선교사들도 '어떠한 경우에도 성도들 개인

을 통하여 돈이나 물품을 받지 말아 주실 것, 개인적으로 헌금하는 성도에게는 교회 회계부나 재정부, 혹은 선교위원회를 통하여 지명헌금으로 하도록 권면해 주실 것, 불가피하게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회로 보고해 주실 것 등'에 대한 교회의 요청에 대하여 기꺼이 동의하여 동참키로 하였다.

중헌의 온 성도들은 이러한 정신을 깊이 이해함으로, 혹여라도 헌금으로 인하여 선교사들이 불편해지는 일이 없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헌금 바로 하고 바로 쓰기'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선교를 더욱 힘있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해야 하겠다.

'97 가을 교역자 수련회

20일부터 22일까지

21, 22일 주간성경공부반, 양육반 휴강

'97 가을 교역자수련회가 20일(월)부터 22일(수)까지 3일간 수안보에서 진행된다. 담임목사 부부를 포함하여 56명의 교역자들이 참석하게 될 이번 교역자 수련회는 새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모든 교역자들이 같은 목회적 비전과 실천을 나누고 훈련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교역자수련회 관계로 21일과 22일 양일동안 주간성경공부반과 양육반 공부는 휴강하게 된다.

장로 · 안수집사 · 권사 임직예배

10월 30일(목) 저녁 7시 본당에서

축하선물은 일체 안받기로

교회는 오는 10월 30일(목) 저녁 7시 본당에서 제30대 장로 장립, 제11대 안수집사 장립, 제39대 권사 취임을 위한 임직예배를 드린다.

장로 장립 대상자는 한송규, 임기체, 김춘권, 김영수, 정홍식, 김환기 등 6명이며, 안수집사 장립 대상자는 김용도, 표완식, 이지은, 김연근, 박대진, 조중광, 정선현 등 7명이다.

그리고 권사 취임 대상자는 강순자, 강옥자, 강호임, 고명진, 고춘자, 구옥자, 구정희, 권영교, 권종순, 금호순, 김계수, 김계희, 김순은, 김연태, 김종순, 노순옥, 도성희, 마경자, 박정숙, 변금순, 안금자, 유효순, 윤경춘, 윤재선, 이강자, 이계문, 이길순, 이남숙, 이복희, 이상금, 이상화, 이수자, 이오목, 이음진, 이정애, 이정애, 이진모, 이혜자, 전정희, 전현진, 정문대, 정옥남, 정옥영, 정은숙, 지인숙, 채혜선, 최전화, 한명희, 한순희, 홍기완 등 50명이다.

이번 임직예배는 김성관 담임목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설교는 신세원 목사(총회장, 창신교회)가, 권면의 말씀은 길자연 목사(부총회장, 왕성교회), 애송탁 목사(동헌교회) 등이 맡았다. 그리고 축도는 김창인 원로목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그동안 임직예배때마다 성도들이 임직자들에게 축하선물을 주는 것은 거의 관행처럼 여겨져 왔으나, 금번 임직예배부터는 축하선물은 일체 받지 않기로 하였다. 이는 임직자들 스스로가 최근 우리 교회에서 벌이고 있는 '헌금 바로 하고 바로 쓰기' 운동에 동의하여 제안한 것을 교회가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온 성도들은 교회와 임직자들의 뜻을 살피, 축하선물보다는 진정한 축복의 기도 가운데 임직자들을 축하해야 할 것이다.

찬송의 은혜에 잠기는 금요집회에 오세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금요집회는 종종 1000여명의 찬양대로 돌변(?)한다. 지난 10월 3일 집회에서는 참석한 전 성도들이 남녀 2중창으로 207장 '주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도다'를 부르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기도 했다. 그리고 10일 집회에서는 정학주 집사(할렐루야 찬양대 독창자)와 예수생명 남성중창단의 찬양이 있었고, 특히, 청년1부에서 준비하여 공연한 마일, 손(Hands)이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면서 큰 은혜를 끼치기도 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손을 저주와 미움의 손으로 바꾼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금 그 손을 축복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지난 주(17일) 금요집회에서는 1교구 부부중창단과 대학부 중창단, 박나연 선생(할렐루야찬양대 독창자) 등의 찬양이 있었다. 이번 주에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시간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케냐 선교 탐방, 선교위원회에서

10월 13일부터 29일까지

지난 13일(월) 저녁, 선교위원회에서 노광현 장로, 박영식 장로, 김광남 장로, 이승람 목사 등 4명의 선발대원이 케냐 선교탐방길에 올랐다. 아프리카를 선교대상지로 삼고, 아프리카 선교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케냐로 향한 것이다.

이들은 우선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하여 지난 17일에 케냐 나이로비에도 도착하였으며, 케냐에서 27일까지 머물면서 아프리카 선교현황을 둘러보며, 우리 교회가 동참할 수 있는 영역들을 조사한 후, 다시 이집트를 경유하여 29일(수) 아침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들의 탐방을 통하여, 우리교회 선교위원회 및 전 성도들이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이해를 좀더 세밀하게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성도들은 이들이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여행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회에서는 이번 탐방에서 얻어진 자료들

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는 많은 중헌의 젊은이들이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프리카와 기타 미전도종족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제4차 학습 및 세례식

11월 16일 찬양예배시 본당

교회는 제4차 학습 및 세례식을 오는 11월 16일(주일) 찬양예배시에 거행한다. 이에 따라 11월 2일과 9일 오후 3시에 교육관 307, 309, 314호에서 교육을, 9일 오후 4시에는 문답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기회에 학습, 세례, 개종, 입교, 유아세례를 받고자 하는 성도들은 10월 26일(주일)까지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하고 예정된 교육과 문답을 받아야 한다.

헌혈합시다

오늘 본당 앞, 오전 8시에서 오후 3시까지

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본당 앞마당에서는 사랑의 헌혈이 실시된다. 지난 주부터 분수대 앞에 붙은 '피를 나누어 ... 생명을 살립니다 (Give blood ... Save life)'라는 문구가 성도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나에게 여분으로 주신 피를 수혈이 다급한 환자들을 위해 내어 주는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몸의 건강뿐 아니라, 영혼이 깨끗해지는 축복이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헌혈에 동참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 김창인 목사의 이사야서 강해 ●

선민의 행복

(이사야 8:9-18)

이 세상에서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을 가리켜 복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죄악이 섞이기 쉽습니다. 세력 높은 것도 복이지만 원수가 해를 끼치려는 무서운 공포가 따릅니다. 기술이 좋은 것도 복이지만 악에 이용당하여 사람을 죽이는 기계를 만드는 딱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인물이 예쁘고 잘 생긴 것도 복이지만 지나치게 잘 생기면 남에게 시험거리가 되어 죄를 범하는 일도 종종 있으니 이것도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시어 자녀로 삼아 주시고 권능으로 보호해 주심을 입은 선민이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1. 선민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1) 해할 자가 없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모략하며 괴롭히는 개인이나 민족이나 나라는 망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던 자들은 첫째, 호언장담을 해도 망합니다. "너희 민족들이 원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9절) '원화한다'는 말은 호언장담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에서 앞길이 막혔습니다. 뒤에서 말발굽을 울리며 따라오는 수많은 애굽의 군사들이 "너희들은 이제 끝이다. 게 쫓겨라"고 원화하며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을 장사지내는 무덤이 아니라 원화하던 애굽 병사들이 물고기 밥이 되는 공동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자들은 결국 망하고 맙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자들은 아무리 철저한 훈련을 받았어도 망합니다.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따라 필경 패망하리라"(9절)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훈련을 많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애굽 군대가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졌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진 것입니다. 허리를 동에 훈련을 받고 장전무장을 해도 하나님을 만류해 예기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자들은 서로 동맹을 맺어도 별수없이 망합니다.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10) '함께 도모한다'는 말은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계획을 짜고 동맹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망해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도 별수없이 하나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민의 행복은 해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행복입니다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14절) 하나님이 그의 원수에게는 심판의 통둥이가 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고마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만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첫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어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승리를 주십니다. 둘째, 어려운 문제들에서 구원하십니다. 질병과 온갖 근심, 괴로움에서 구원하십니다. 셋째, 악마의 꾀술에서 건져내십니다.

(3) 하나님이 시은자가 되어 주시는 행복입니다

'시은자'란 계속하여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물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때를 쫓아 주시고 새 옷을 입혀 주시고 약과 좋은 것을 먹여 주시므로 계속하여 사는 길을 열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계속 인도해 주셨고 그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2. 성도가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12절)

(1) 성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력이 좋고 돈이 많은 사람, 인물이 잘나고 계획이 능한 사람을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때려가라 하나님도 손댈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채총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의심하는 그물에 걸린 사람은 마음의 자유를 빼앗기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때다 싸우면서 나아가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팔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2) 성도는 원수와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해할 자가 없습니다. 호언장담하고 아무리 좋은 훈련을 받고 서로 동맹을 맺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선민에게는 평안을 주시며 저희의 구원자가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때를 따라 좋은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남방 유다를 쳐내려올 때에 유다의 아하스 왕은 두 나라가 동맹한 것이 부러운 나머지 앓수르에 사신을 보내어 타협했습니다. 앓수르는 아람보다 더 악독한 나라로서 이들과 타협하는 것은 개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리와 화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3. 선민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 하나님만 믿고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주위 환경이 어떠한지 오늘 내가 할 일을 다하면 됩니다. 요셉은 어디에 가셔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부모님 슬하에 있을 때는 열두 형제 중 가장 훌륭하게 효도를 하여 극상품 포도를 맺었으며,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눈물을 머금고 맘을 흘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단연 거절함으로써 오히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거기서도 인간의 썩은 밤새를 피우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또 맺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수고를 다 갚아 주시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셨습니다.

(2)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불신자들의 핍박도 무섭지만 하나님에게 메림받는 것이 더욱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하여 항상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가 때를 따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에 되실 것이며 앗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라"(14절) 참 선자가 되지 못하고 간판만 신자 노릇을 한 이스라엘과 유다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간판은 세례교인, 집사, 권사, 장로이지만 신자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임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간판은 목사, 장로인데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무서워하고, 천국을 사모하기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평안에 순종하기보다는 마귀의 유혹에 끌려다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방해거리가 됩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로 주변 사람들에게 '야, 집사가 그 정도니, 무슨 교회를 다니겠어. 예수 믿는 것 그만두자'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간판 신자에서 벗어나 구원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해할 자가 없습니다. 호언장담하고 아무리 좋은 훈련을 받고 서로 동맹을 맺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민에게 평안을 주실 뿐 아니라 저희의 구원자가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때를 따라 좋은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새삼세나 마귀를 겁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포도 열매만 맺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임하여 원수의 뿌리를 뽑으면 앞사귀 해나도 남지 않고 모두 마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억울한 것은 참고 성령의 열매 맺는 대로 힘쓰기를 바랍니다. ■

○ Next Sunday's Message By Rev. Kim, Sung Kwan ○

○ 김성관 목사의 다음 주일 설교 ○

NAAMAN IS HEALED

(2 Kings 5:1-14)

How often does your pride get in the way of receiving God's blessings? Today's message emphasizes the need for Christians to drop their sinful pride and own way of thinking. It reveals the importance of listening to and obeying the Lord's direction through the Holy Spirit. It is a biblical story that is considered a Gentile story because it reveals God's grace towards people other than His own.

"Now Naaman, captain of the army of the king of Aram, was a great man with his master, and highly respected, because by him the Lord had given victory to Aram. The man was also a valiant warrior, but he was a leper" (vs. 1). Leprosy is a physical and spiritual curse. Although God used Naaman to punish Israel, He also cursed Naaman for his sin.

"Now the Arameans had gone out in bands and had taken captive a little girl from the land of Israel; and she waited on Naaman's wife. She said to her mistress, 'I wish that my master were with the prophet who is in Samaria! Then he would cure him of his leprosy'" (vss. 2-3). As a slave held in bondage, this little girl not only knows the power of God but desires that the one who holds her captive receive God's blessing. No where in the Old Testament does it teach that God's people should love their enemy; yet this little girl's heart follows Jesus' teaching that God's people should 'love their enemies and pray for those who persecute them' (Matt. 5:44). Her heart is close with God. It shows us that those who experience God's love understand its life enhancing and all encompassing power.

"Naaman went in and told his master, saying, 'Thus and thus spoke the girl who is from the land of Israel.' Then the king of Aram said, 'God now, and I will send a letter to the king of Israel.' And he departed and took with him ten talents of silver and six thousand shekels of gold and ten changes of clothes" (vss. 4-5). Obviously his wife told him of the girl's statements and because of his dire circumstances he was willing to try anything. So, he runs to the king and requests his permission to seek this unusual help. The king obliges him most probably because he feels sorry for him. It's apparent that outside of Israel lepers were not necessarily isolated.

"He brought the letter to the king of Israel, saying, 'And now as this letter comes to you, behold, I have sent Naaman my servant to you, that you may cure him of his leprosy.' It came about when the king of Israel read the letter, that he tore his clothes and said, 'Am I God, to kill and to make alive, that this man is sending word to me to cure a man of his leprosy? But consider now, and see how he is seeking a quarrel against me'" (vss. 6-7). This king of Israel is apparently not close with God. He handles the matter rather poorly. The tearing of clothes was considered an outward expression of anguish and repentance. Unfortunately, this king's expression of anguish revealed his pride and concern that the king of Aram was trying to trick him into a fight. He shows no signs of repentance, the major key needed to receive God's help.



고침받은 나아만

(왕하 5:1-14)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자존심이 얼마나 자주 방해가 됩니까? 오늘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최악된 자존심과 스스로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록한 값진 교훈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1절). 문둥병은 육체와 영혼 모두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주시기 위하여 나아만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은 또한 나아만을 그의 죄 때문에 저주하셨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았매 저가 나아만이 아내에게 시중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2-3절). 사로잡힌 노예로서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을 뿐더러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주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구약의 어느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의 마음은 '원수를 사랑하고 꺾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았습니다(마 5:44). 소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흡사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감싸는 사랑의 능력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잘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며칠새 온 십 달란트와 금 육천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4-5절).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할 수밖에 없었던 나아만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분명히 나아만의 아내는 자기의 남편에게 소녀가 건네준 소식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달려와 특별 청원을 하였고 그를 축출한 여긴 왕이 이러한 호의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밖에서는 문둥병자들이 반드시 고립되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되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에 관대하게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내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갓에 생각하교 제 왕이 틈을 타서 내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6-7절).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비통함과 회개의 외적인 표현으로 여겨졌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왕의 비통함의 표현은 그의 교만을 드러냅니다. 곧 그는 아람 왕이 그를 속여서 전쟁하러 한다는 것에만 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회개의 징표들을 보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It happened when Elisha the man of God heard that the king of Israel had torn his clothes, that he sent word to the king, saying, 'Why have you torn your clothes? Now let him come to me, and he shall know that there is a prophet in Israel'" (vs. 8). Elisha wanted to know why the king tore his clothes! He knew how foolish and sinful the king was and wanted him to realize that indeed a man of God was surely capable of handling this situation.

"Elisha sent a messenger to him, saying, 'Go and wash in the Jordan seven times, and your flesh shall be restored to you and you shall be clean'" (vs. 9). Elisha gave Naaman simple instructions that would cure his leprosy; for which there was no natural cure. "But Naaman was furious and went away and said, 'Behold, I thought, 'He will surely come out to me and stand and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his God, and wave his hand over the place and cure the leper. Are not Abanah and Pharpar, the rivers of Damascus, better than all the waters of Israel? Could I not wash in them and be clean?' So he turned and went away in a rage" (vss. 10-12). Can you believe his arrogance? Here it is that he is given a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to be cleansed and he is hooked-up on the details of his cure. His hurt pride that Elisha didn't come himself but sent a messenger and his perception of how the healing was to take place caused him to walk away from God's blessing.

"Then his servants came near and spoke to him and said, 'My father, had the prophet told you to do some great thing, would you not have done it? How much more then, when he says to you, "Wash, and be clean"'" (vs. 13)? Wow! This passage really shows the love of God in His people. Here it is that his servants, who have been forced away from their families and held against their will into slavery, desire for their master to be healed. Most people in their situation would want him to suffer his slow death and think it only fair, but those who know God know that human beings are special and deserve every chance to come to know Him.

Naaman was given a second opportunity to receive God's blessing through his servants. He listened to them and obeyed the word of the man of God. "So he went down and dipped himself seven times in the Jordan,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man of God; and his flesh was restored like the flesh of a little child and he was clean" (vs. 14). Why was this arrogant unbeliever who took God's people into bondage made well? Naaman was healed because he had simple faith. If he hadn't listened and obeyed the man of God, he wouldn't have been healed. God's love in the Old Testament is not different than His love in the New Testament. His mercy and grace extends to all those who believe in Him.

The story of another leper's faith reads, "While He was in one of the cities, behold, there was a man covered with leprosy; and when he saw Jesus, he fell on his face and implored Him, saying, 'Lord,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And He stret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him, saying, 'I am willing; be cleansed.' And immediately the leprosy left him" (Luke 5:12-13). Faith in God's power is obviously strong. It takes faith to receive God's blessings!

Jesus tells us,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rk 8:34). Our pledge of allegiance, even to death, is demanded of all believers in Christ. It takes faith in Jesus Christ as our Lord to drop our pride and way of thinking, to actually die to self, in order to be made new again. If we listen and just do what the Holy Spirit calls us to, we will forever be blessed. The key is to listen - not to just hear God's words but to do them! The Bible is more than ink and paper, it's more than just words to read. It's the living word of God! If you read it or hear it with your heart, then your heart will change and become soft. This softness will allow you to receive God's blessings.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8절). 엘리사는 왜 왕이 옷을 찢었는가를 알기 원했습니다. 그는 왕이 얼마나 어리석고 죄악스러웠는지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형편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고자 하였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9절)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불치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하여 단순한 지시만을 내렸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아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말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10-12절) 그의 오만함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나아만은 평생에 단 한번뿐인 기회를 갖고서도 치료방법에 연연해 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고 사환을 보낸 것과 치료 방법이 자신이 기대한 바와 다르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앞에 두고 뒤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13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곧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가족들을 떠나서 종살이 하던 나아만의 종들이 자신들의 상전이 낮게 될 것을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아만이 천천히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당연했겠으나 그들은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14절) 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았던 이 거만한 불신자가 나음을 얻었을까요? 나아만이 나음을 입은 것은 그가 단순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었다면 그는 나음을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긍휼과 자비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풀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문둥병자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눅 5:12-13).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분명히 강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막 8:34) 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죽기까지 충성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에 대하여 죽고 우리의 교만과 사고방식을 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에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행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열쇠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기 위하여 듣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읽혀지는 책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또한 듣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마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 제암교회를 다녀와서 ✽

‘순교 정신 이어받아
새롭게 성장하자’허승빈
(실로암찬양대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위원회를 섬기고 이번 국내 성지순례를 통해 아름답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연구원 가족과 선교위원회 모든 분들과 함께 이승림 목사님의 지도로 시작하여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제암리에 있는 제암교회로 향했다.

제암교회 예배당에서 현재 그곳의 담임목사이신 강신범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전시관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고통당하신 순교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다. 불속에서 아이를 밖으로 밀어내는 아버지에게 총대를 거누는 일본인들을 바라보며 어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순교 정신 이어받아 새롭게 성장하자’라는 표어가 본당 정면에 걸려 있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죄가 되어 일본인들에게 화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모습이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그 당시 처참하게 돌아가신 28인의 묘를 뒤로 한 채 우리 일행은 제암교회를 떠나 한국순교자기념관을 향했다.

가는 도중 황해도 소래에 소재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를 본따 지은 양지충신신학대학원에 있는 소래교회를 잠시 들렀다. 마지막으로 간 순교자 기념관에서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와 함께 순교자들의 활동과 업적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우리가 몰랐던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교당하셨다는 사실로 인해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나의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순교하신 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만큼 성장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테반의 순교 정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신 순교자들의 정신을 본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일행은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다.

이번 성지순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 18:1)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바친 나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

새벽의 새 바람 뜨겁게 일어난다

김운섭
(집사, 초등부 교사)

좁은 데서 넓은 데로 아래서 위로
새벽의 새 바람 뜨겁게 일고
흠어진 양을 우리로 모으는 그 음성
어두운 세상 한 빛 비추는 새 시대 새 목자여.

까만 시간은 새벽을 멈춰 놓고
갈까말까 망설임의 갈등은
성령에 이끌려 어느새 셋길 따라 좁은 길 따라
혼자이면서 동행하는 그분 오직 예수.

신이 임재하는 발소리 귀 기울여
음츠렸던 어깨 위로 별빛 쏟아 내리면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새로이 밝히려
십자가 지켜주고 새벽 등대로 지키리라.

오라 오라 부르는 목자의 새 음성
굶주린 양의 맥박은 강하게 힘차게 뛰며
동서남북 향해 양을 부른다 양을 모은다
새 목자의 외침은 오늘도 양을 기다린다.

시들어 꺼져가는 옛 작은 불씨
성령의 기름 부어 새 시대 새 영혼 살리려
잠자는 자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때가 오면 시간을 아껴 늘 깨어 준비하리라.

고요히 열리는 미명 터지는 순간
깨우리라 깨우리라 깨우리라
우리들만의 대화가 있는 그 처소
재림의 마지막 때 모아서 기도하리라.

간증의 글을 기다립니다

우리들 생활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시는 대로
글로 옮겨
성도들과 나누어 주세요.
언제든지 주간충현실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주간충현실은
선교관 3층에 있습니다.

주간충현 편집실

❖ 나의 주 나의 하나님 ❖

낮은 곳에도 진리를

김현자
(14교구, 교정전도회원)

근자에 들어 나는 소위 ‘어둠’과 벗하게 되었다.

다름 아니라 수용자와 무기수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감사히 누리왔던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이다. 이는 주님께서 어떤 곳에서 나셨으며, 어떤 자들과 이웃하라고 하셨는지를 상기한다면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리라.

인간 세상에도 법이 있고 도덕이 있으되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율이 그들을 어찌 심판하실지는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알려 주어 저 높은 성전의 문 앞에 이르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는 것이 나를 비롯하여 행동을 같이 하는 교우들 모두의 생각이라고 여겨진다.

사실 창살을 사이에 두고 일반인들과 구별되어 있는 그들을 볼 때, 정작 참회할 자가 누구인지는 모호하였다. 과연 주님 앞에 서서 죄짓지 않았노라고 자부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는가. 나 자신도 주님을 먼저 알고 그분을 향해 눈물 흘림으로써 죄를 자복한 것 외에 그들보다 나은 점이라곤 전혀 없을 지도 모를 일이다. 특히 중죄인으로 정해져 있는 무기수들을 보면 이런 느낌은 더 강하게 부딪쳐 온다. 고달픈 삶의 멍에를 어찌 떨쳐 버렸는지, 차라리 초연해져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들을 보면 영락없는 ‘돌아온 탕자’요, 주님 앞에 처음 무릎을 꿇던 그때의 우리 교우들이다. 바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영광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셨으며 나는 기쁘기 그지 없다. 대체 나와 같

은 노년기에 이르러 그분을 통하지 않고 이만한 삶의 가치와 보람을 어디 가서 찾겠는가 말이다. 나는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의 형상을 비로소 그곳에서 본다. 또한 내 지난 삶의 어둠과 음습했던 부분을 주님께서 어찌 굽어 살펴 주셨는가를 제삼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돌이켜 보면 이제껏 살아온 인생이 한 편의 소설과 같을진대 그 파란의 구비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손길이 어찌 감싸 오셨는가를 벽한 감동으로 되새겨 보곤 한다. 그 덕분에 주님께서 명하신 우리 기독인들의 ‘빛과 소금’이라는 사명을 조금이나마 깨달아 간다고 할지.

그리고 이 짚을 빌어 고백하건대 나는 그때마다 주님께 조른다.

“주여, 높은 위에서 개신당신의 권능으로 펼쳐 제압술을 열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인간임에 무력한 제가 대관절 무엇에 자신이 있어 당신을 증거하겠습

니까. 믿을 바는 오직 주님이신즉 힘 주시지 않으면 자칫 잘못 증거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가히 옥색에 비금가는 행위라 우스울지 모르지만, 그분이 나의, 아니 전 인류의 아버지이시니 나는 철모르는 아이처럼 그리 한다. 필요한 만큼 알아서 쓰시는 것 자체가 그분의 소관이시니 나로서는 달리 도리가 없다. 단지 여생에 대한 불안이나 초조가 없어서 감사할 뿐.

▼ 교정전도회원들은 전국의 교도소를 방문하여 전도집회를 주관하며 수용자들과 교제를 나눈다.



취재수첩

유아부 학부모 좌담회

10월 12일 낮 12시부터 교육관 212호에서는 유아부가 주관하는 학부모 좌담회가 많은 유아부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우측 사진). '유아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 좌담회에서 정연희 전도사는 훌륭한 사무엘 뒤에는 기도하는 신실한 어머니가 있었음을 상기시켰고, 4명의 학부모가 대표로 나와 자녀 양육 사례를 발표하였다. 사례 발표를 통해 신앙에 기초한 구체적인 양육 방법이 거론되었는데, 성경읽어 주기, 가정예배 드리기, 잠자기 전 축복기도해 주기, 잊어른 공경하기, 감사생활 하기, 심부름하기 등에 관해 좋은 의견들을 나누었다.



영아부 학부모 초청 특강

영아부에서는 지난 10월 12일 영아부 1, 2부예배 후 선교관 103호에서 정하우 장로를 강사로 하여 학부모 초청 특강을 실시하였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어린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마땅히 가르쳐 교회와 나라에 필요한 일꾼으로 키우자'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 양육을 되돌아보고 신앙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해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유치부 반별 찬송가부르기대회

유치부에서는 12월 9일 15분과 11시 15분에 교육관 205호에서 반별찬송가부르기대회를 실시했다. 열매과(7세)와 꽃과(6세)를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이 찬송가부르기대회는 어린이들에게 찬송을 부를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부르고, 열심히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중등1부 작은음악회 찬양 통한 전도집회

중등1부에서는 18일 오후 5시 30분 복지관 지하 2층에서 '작은 음악회'를 가졌다. 친구들을 초청하여 찬양을 통한 전도를 이루기 위해 많은 친구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를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를 뿐 아니라, 성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기도가 함께 하였다. 이 행사를 계기로 하여 오늘은 총동원전도주일로 지킨다.

청년2부 성경암송대회

청년2부에서는 지난 10월 12일 집회 후 교육관 514호에서 성경암송대회를 실시하였다. 금년에는 집회 시간에 이사가 26장까지 공부하여왔는데 이 중에서 범위를 각 반별로 정하여 조원들이 함께 암송을 준비하여 이날 회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가진 것이다.



▶ 중등3부에서는 오늘(19일) 낮 12시 20분부터 교육관 601호에서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초청 기도회를 실시한다. 다음 세기의 주역이 될 이들에게 당면한 문제인 신앙 생활과 변화된 입시 제도를 중심으로 기도회와 특강(강사: 현직 중학교 교사) 등으로 진행된다.

▶ 대학부는 오늘 집회 시간에 면려회 총회를 개최하여 1997년 1년간의 일들을 결산하고 1998년도의 새로운 회장단을 선출한다.

▶ 청년1부는 지난 주일(10월 12일) 제30차 면려회 총회를 갖고 새로운 회장단을 선출했다.

회장에 신현식 형제, 부회장 박승산 형제, 조한글 자매를 각각 선출했다.

▶ 장년2부에서는 19일 오후 12시 30분부터 교육관 314호에서 특강을 실시한다. 이 특강에서 '크리스천의 가정 생활'에 대해 구명신 전도사가 강의를 한다.

▶ 안수집사회에서는 오늘 오후 3시 30분 교육관 314호실에서 특강을 실시한다. 강사는 정갑신 목사(출판국·중등 2부·교육연구소 지도).

교정전도회 천안교도소 방문

교정전도회에서는 지난 10월 10일 천안소년교도소를 방문하여 전도 집회를 인도하였다. 전형준 목사의 말씀 선포와 루디아중창단의 찬양을 통해 재소자들과나 관계 직원들이 신앙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 특히 교정전도회에서는 현재까지 검정고시반에 소속된 수용자들이 학업에 더욱 열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돌보아왔는데 앞으로는 악단 소속의 수용자들에게 악기 연주 지도를 하면서 교제를 나눌 계획이다. 순간의 실수로 사회의 범죄자가 된 이들이 이러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도 활동을 통해 주 안에서 새 생명을 받고 출소 후에는 변화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요망된다.

(사진 / 이운구 기자)

사진 찍으세요

- 찍는 곳
홍보실(선교관 408호)
- 찍는 때
주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수요일 낮 12시 30분~오후 7시
금요일 오후 6시~7시 30분
- 찍는 교구
1997년 10월 19일 : 13교구
1997년 10월 26일 : 14교구
- 찍을 사람
원로, 은퇴, 시무장로 / 교역자 / 안수집사 / 원로, 은퇴, 시무권사 / 남녀 서리집사

충현실업인전도회 영성훈련 대상회원 초청 집회

10월 21일(화) 오후 7시 갈릴리홀, 강사 김성관 목사

지난 14일(화) 저녁 7시 베다니홀에서 있었던 안수집사회 영성훈련에 이어서 이번 21일(화) 같은 시간에는 실업인전도회원들을 대상으로 영성훈련이 실시된다. 강사는 김성관 담임목사이며 장소는 갈릴리홀이다. 김 목사는 지난 14일 안수집사회 영성훈련에서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 베드로의 심정을 통하여 '선교'에 힘써야 할 우리들에 관하여 강의한 바 있다.

이번 실업인전도회 집회는 회원 확충과 신앙에 근거한 기업 활동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다. 기업을 경영하는 성도나 기업체의 임원 및 직원인 성도는 모두 실업인전도회에 가입하여 직장의 복음화와 교회 부흥에 동참하며, 목회적 비전의 공유와 실천을 기대한다.



충현 게시판

하늘의 기쁨, 새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오전 10시 30분 갈릴리홀에서는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환영회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중 3개월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환영회에서 김필수 목사는 누가복음 15:3-7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약 180명이 수료한 이번 환영회를 통해서 470여명의 성도들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지극히 기뻐하시는 감격'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은 총 250명이었습니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품고 새가족들을 맞이함으로써, 새로 오는 분들은 누구든지 따뜻한 주님의 품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하겠습니다.

5부예배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찬양위원회에서는 5부예배 찬양대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대학, 청년부의 연령층에 해당하는 충현의 젊은이들 중 새가족으로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찬양대 가입 원서는 찬양위원회실(본당1층 / 구내전화 205번)에서 교부합니다. 5부찬양대의 연습시간은 매주 토요일 18:30-20:00과 주일 14:20-14:45, 16:10-16:50입니다. 찬양대원 모집 마감은 10월 26일이고, 모집된 찬양대는 11월부터 찬양대로서게 됩니다.